

주부신행담 관세음보살과의 인연

내 나이 44살 되던 1969년, 시집살이를 하며 어렵게 살던 나는 어느 날 몸이 나빠져 병명생활을 하게 되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비로소 절을 진심으로 찾게 되었다. 친정도 시집도 불교와 인연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절에 가게된 것이다.

절에 다니면서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대체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염불을 하면 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많았다. 그 시절의 나는 시집살이로 마음도 몸도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용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고 그곳을 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심장관막증이라는 무서운 병명을 가지고 새가 새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 나도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때였다. 이때의 심장관막증은 대부분 소생할 수 없는 병이었다. 너무 괴롭고 힘이 들 때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때 친정어머니께서 '조용한 절이 있으니 같이 며칠 휴양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시골 절에 갔다.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 절이었다. 절에 가서 머무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런 만큼 스님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호기심도 많았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득했다. 이때는 지금처럼 어디서나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었던 때였다. 또 그곳 스님들은 극히 외적으로만 대해 주어서 무척 냉정하다는 느낌이 받았다.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번뇌와 집착으로 가득한 내가 찾아갔을 때 스님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마음에 가득한 번뇌를 녹일 수 있는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단 한마디라도 심어주었다면 훗날 나의 해탈이 많이 단축되었을 것을 그렇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쉽기만 하다. 아쉬움을 안고 집에 돌아온 나는 병이 점점 악화되어 숨이 차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밤이면 신란한 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병원에 입원했다. 어느날 낮잠자고 깨니 친정어머니께서 울고 계시고 원장님을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으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기에 네가 죽은 줄 알았다" 하시기에 나는 내 꿈 얘기를 했다. 꿈에 내가 쓰는 방 천장 한가운데가 둥그렇게 돌리더니 선녀같은 사람과 4, 5세 정도의 동자가 따라 내려오는 것이었다. 옷은 화려한 화려복 같은 옷이었고 머리에는 보기에 도 눈부신 화관을 쓰고 있었다. 내 곁에 사뿐히 앉은 이 선녀는 다름 아닌 여학교 후배이자 시모도 막내딸이었다. 그 시누이가 내 등을 만지며 "고생이 많았지요" 한다. 얼굴은 자비 그대로의 모습이고 그 손길은 친정어머

히 기도를 해왔는데 건강은 더욱 나빠져 산에 갈 수가 없어 화계사 뒷산으로 옮기게 됐다. 화계사 뒷산에는 무인들이 기도하러오고 울긋불긋한 것을 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있어 차마 갈 수가 없었다.

나는 화계사 총무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더니 산신각 뒤쪽으로 안내해 주시며 미국스님들이 와서 공부하고 운동하는 곳이라며 망껏 기도하라고 해주셨다. 거기에는 보살상이 스물네구가 모셔져 있었다. 나중에 알게됐지만 거기 보살님은 바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었다. 이 곳에 갔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은 자급도 잊지 못했다.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다녔다.



그림 · 이준석

시집살이 · 난치병속에 찾은 절 생명 잇고 마음의 평화 얻어 불은 깊고자 매일 관음기도

나의 따뜻한 손길같이 느껴졌다. 이때 무심코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대문에서 부엌까지 양쪽으로 남자들이 막대기 향을 들고 늘어선 것이었다. 내가 놀라자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라며 "앞으로 언니를 도와줄게요" 하고는 천장으로 구름같이 다시 올라갔다. 나중에 절에 다니면서 그때 놀러온 남자들이 신장님이라는 것을 모으므로 알게 되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무당집을 다녀오더니 산신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부처님께가 아닌 산기도를 시작했고 내 신앙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7년여를 꾸준

히 기도해왔는데 건강은 더욱 나빠져 산에 갈 수가 없어 화계사 뒷산으로 옮기게 됐다. 화계사 뒷산에는 무인들이 기도하러오고 울긋불긋한 것을 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있어 차마 갈 수가 없었다. 나는 화계사 총무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더니 산신각 뒤쪽으로 안내해 주시며 미국스님들이 와서 공부하고 운동하는 곳이라며 망껏 기도하라고 해주셨다. 거기에는 보살상이 스물네구가 모셔져 있었다. 나중에 알게됐지만 거기 보살님은 바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었다. 이 곳에 갔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은 자급도 잊지 못했다.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다녔다.

나는 어렵게 어렵게 생명을 이어주신 관세음보살님께 보은하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 때 우연한 인연으로 관음회에 입회하게 돼 십여년동안 <법화경>을 열심히 읽었다. 또 의정부 포교원 원장스님과 인연이 닿아 포교원에 다니게 되었다. 송암스님은 자비롭고 포교에 큰 뜻을 가진 스님이시다. 포교원에 다니면서 연화회를 만들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모아 몇몇 범우님들과 같이 부처님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종교동부 법회도 열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철학박사인 김공철 박사님이 주도하는 한국불교교육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했다. 한 달에 두 번씩 7년이라는 긴 코스를 끝마치고 4년을 더 다니며 한사람의 법사로 거듭나 의정부 포교원에다 군법회를 만들어 삼년동안 이끌었다. 또 의정부 가가이에 있는 부대를 찾아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도와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지금은 관세음보살님의 사진을 나의

방에 모시고 큰일이 없는 한 하루 한번씩 참신과 염불독경의 수행을 하고 있다. 처음에 외국에 가게 들어간 신앙의 세월이 아까워 나같은 길을 밟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1994년 <연꽃으로 피어나리>라는 신앙수기집을 펴내 2천여부를 주위에 나눠주었다.

두번이나 심장대수술을 받아 관막을 기계로 대체하여 살고 있고 나이도 많지만 아직까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만은 누구 못지 않게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즘은 24시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머리 속으로 정근하며 가슴 속에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을 안고 산다. 나는 세번을 꿈에 관세음보살을 친견했고 또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두려움이 없다. 부처님의 가피는 한 생명 다 바쳐 기도 정진하면 꼭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연기법인 인과법이 아니겠는가.

이해숙(서울 송파구 방이동)

새천년, 우리 몸에 부족한 기를 충전시켜주십시오.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병이 힘차게 쏠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장이 쫄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 240,000



기의신비감 피라미드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명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제효과(민명성박)
- 지형적으로 수심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장양실씨)
- 뇌막염이기가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마우뿔 (십21개 순금도금) ₩ 80,000



- 전화를 주시면 기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드로기 충전기 무료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무상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02)453-5851 /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6-011003(예금주:김진순)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①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②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 전주용 간판 ■ 게시판 ■ 현수막
- 목간판 ■ 난간대 공사
- 현수공사(올타리공사)
-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x 10cm

청배후 솜뭉을 꼭 끼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